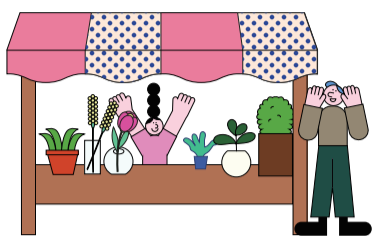


# 예술장터로 탈바꿈 동명동 '아트 앤 에코 투어 데이'

내일 동명동 카페거리 예술골목 일대 푸른공방나무 등 로컬상점 6곳 협력 40여개 프리마켓·기획전시 이벤트 등 자발적 주민 축제... 예술 콘텐츠 기대



골목골목 예쁜 식당, 카페, 갤러리, 책방, 공방... 광주 동구 동명동이 아기자기한 골목예술 여행지로 다시 태어난다. 마켓, 체험, 공연, 투어 등 4개 콘텐츠를 아우르는 축제 'Art & Eco Tour Day(아트 앤 에코 투어 데이)'가 25일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에서 진행된다.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오로지 동명동 주민, 예술가, 상인들이 모여 준비한 축제의 장으로 동명동의 지속가능한 예술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번 축제는 동명동에 위치한 푸른나무공방, 아트벨라, 아우르, 빛남영화공동체, 동명루아우, 하이퍼 협동조합(여행자의집 운영)이 공동으로 준비한 자리다. 25일 하루 동안(오전 11시~오후 7시), I-PLEX 건물 맞은편 골목 일대에 프리마켓이 열리고 공연, 사인회, 이벤트, 팸투어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프리마켓에서 가죽공예, 염색공예, 금속공예, 패브릭공예, 캔들공예, 목공예, 도자공예, 네온공예, 부채공예, 컬러링북, 팝업북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전통주, 화장품, 드립커피, 오란다, 쿠키, 빵, 수제정, 펫푸드,

코끼리 똥 종이노트, 친환경 제품 등 다채로운 상품들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축제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미래상상 만화가(이정문 화백) 초청 만화 이벤트, 영화 건축학개론 OST 클래식 기타 연주(김진택 한예중교수), 손승범(바리톤) 성악가, 안관주 하모니카 연주, 전남대학교 음악동아리 '선율' 공연도 연다.

더불어 세계에서 동명동에만 있는 유일하게 있는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의 희귀카메라 전시, 페플라스틱·농약분무기통으로 만든 업사이클 악기 전시, DJ 주광이 펼치는 아트뮤직비디오쇼, 스크린샐러 전시, 5·18 기억에 관한 도서, 어린이 경제력물 시장(중고 생활용품장터), 재밌는 톨렛게임, 예술골목 보물찾기, 캐리커처 그리기, 공예체험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이어진다.

원활한 행사 진행은 대한민국대학생교육기부단(광주전남지부) 소속 20여명의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진다. 이들은 친환경 물병(오호)만들기 체험 등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며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구청아트패스, 동명예



광주 동구 동명동의 주민, 상인들이 모여 준비한 골목축제 'Art & Eco Tour Day'가 25일 동명동 카페거리 예술골목 일대에서 열린다. 푸른나무공방 제공

너지전환마을이 참여해 체험과 홍보이벤트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와 연계해 하이퍼협동조합(여행자의집) 주관으로 타지역 여행자들 15명을 초청해 동명동 푸른길, 카메라박물관, 동구인문학당, 원도심골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투어한

다. 동구의 관광콘텐츠자원들을 소개해 동구와 친해지고 관계맺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획한 1박2일 팸투어 행사다.

이지현 푸른나무공방 대표는 "이번 행사가 동명동에 산재한 각종 공방과 로컬상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만든 자

리다. 지자체나 정부기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마련했다"며 "공방이나 로컬상점이 만든 우수 제품들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 공연, 투어를 준비해 동명동 카페거리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선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어머니처럼 그리운 고향... 권성호 개인전

29일까지 광주미술관

광주미술관은 자연 속 어울리진 어머니와 고향을 꿈꾸는 권성호 작가의 개인전 '모향 연(母鄉戀)'을 오는 29일까지 연다. 틈틈이 이어온 화업 30년 인생, 첫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권 작가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어머니와 고향을 품은 자연의 작품 50여점이 소개된다. 언제나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던 일상의 기억과 떠나온 고향을 떠올리는 자연의 풍경이다.

권 작가의 작품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배경 이미지는 자연의 풍경이다. 밝은 색을 이용해 명도와 채도가 강조됐다. 여기에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만의 독특한 중간색으로 표현된 대지에 생명감 넘치는 수목이 자리한다. 특히 마음의 고향으로 설명되는 어머니의 모습이 중첩돼



권성호 작 '소나무들의 속삭임'.

안락함을 선사한다.

권성호 작가는 "본업과 함께 그림을 그리다 보니 개인전이 늦어졌다. 30년 화업 인생 첫 개인전을 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30년간 찾아 헤맨 나만의 작품세계가 드디어 뚜렷해짐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주미술관은 동구 예술길 29에 있다.

도선인 기자

## 점·선·면으로 구현한 생의 순환... 성운호 개인전

내달 2일까지 소암미술관

소암미술관은 생명과 자연의 순환을 도식화해 표현하는 성운호 작가 개인전 'LOOP 점, 선, 면의 순환에 대한 이미지 재구성'을 오는 6월 2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생의 순환을 'Loop'라는 단순화된 이미지로 나타내고 형태와 색채를 가미해 인간의 삶과 자연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순환이 주는 방향성은 우리 모두에게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그려보게 한다.

작가는 단순한 형태와 색채로 보여지는

추상적 이미지에 영혼에 대한 탐구와 인간의 삶을 연관시켜 순환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파생된 이미지의 결은 인간의 삶과 죽음, 영혼이 연계돼 예술의 깊이를 더한다.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오방색 작품 '생은 어디로 가는가'가 눈에 띈다. 몬드리안의 직선과 오방색, 그리고 전통 색등을 교합한 작품은 다시 태어나는 생명들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태어나는지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감을 드러낸다.

소암미술관은 남구 서동에 있다. 전시 관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도선인 기자

## 창단 35주년 광주시립창극단 '천변만화'

30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1부, 거문고 산조·창작 창극 2부, 전통 태평무·단막 창극

광주시립창극단이 창단 35주년을 맞이해 거문고, 태평무 등을 결합한 기획공연 '천변만화(千變萬化)'를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공연은 1와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서영호류 거문고 산조 바탕의 기악 합주곡 '희로애락(喜怒哀樂)'으로 공연의 서막을 올리고, 창작 창극 '산불'과 '로미오와 줄리엣' 무대를 펼친다. 2부에서는 '태평무'를 시작으로 단막 창극 '광한루'와 '개울가' 그리고 타악 합주곡 '대북을 위한 신명 판타지 취(吹)와 타(打)'로 공연의 끝을 장식한다.

1부를 알리는 서영호류 거문고 산조 합주곡 '희로애락(喜怒哀樂)'은 민속악의 명인 서영호 명인이 직접 구성했다. 거문고를 중심으로 현악기 바탕에 관악기의 음색을 더해 기쁨과 노여움, 슬픔, 즐거움의 감정을 한국적인 멋과 흥으로 담아냈다.

이어지는 창작 창극 '산불'은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이다. 작창에 안숙선 명창과 연출에 박성환 연출이 참여했다. 전쟁의 폐해로 여자들만 남은 마을을 배경으로 전쟁의 비극성과 좌절을 표현했다.

1부 마지막 순서는 창작 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유명한 서양 고전 원작을 한국 전통 창극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2008년 국립창극단에서 초연된 후 꾸준히 사랑받는 작품으로 광주시립창극단



광주시립창극단이 기획공연 '천변만화'를 오는 30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만의 색깔을 입혀 선보인다.

2부는 태평무로 시작한다. '태평무'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국의 대표적 전통춤으로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왕과 왕비의 마음을 담고 있다. 한국적 미를 보여주는 화려한 의상과 절제미가 강조된 궁중무용의 미적 요소를 보여준다.

이어 선보이는 단막 창극 '광한루', '개울가'에는 오진욱 연출이 참여했다.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춘향가와 심청가를 주제로 한 단막 창극으로 '광한루'는 오월 단오날 광한루에서 그네를 띄우며 놀고 있는 춘향을 우연히 발견한 이도령이 방자를 시켜 춘향을 불러오는 대목이다. 청춘남녀의 사랑이 움트는 장면으로 이도령과 방자의 주고받는 말맛과 방자의 너끈 너끈한 소리와 흥겹고 발랄한 몸짓이 특징이다.

단막 창극 '개울가'는 심청을 기다리다 개울가에 빠진 심봉사를 우연히 몽은사

화주승이 구해주게 되고 공양미 삼백석을 부처님께 공양하게 되면 눈을 뜰 수 있다 해 달력 심봉사가 시주를 약속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 대목은 화주승의 불경을 따라 하며 말장난하는 심봉사의 해학성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심청의 효심을 엿볼 수 있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타악 합주곡 '대북을 위한 신명 판타지 취(吹)와 타(打)'에는 고석진 명인이 참여했다. 따뜻한 봄, 뜨거운 태양의 여름, 맑고 푸른 하늘의 가을, 차갑게 얼어붙는 겨울에 사계절의 변화를 대북과 타악기로 표현했다.

티켓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1588-7890)을 통해 가능하다. S석 2만원, A석 1만원으로 5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과의 교류공연을 통해 오는 6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이어진다.

도선인 기자